

2012 "엄마에게 희망을" 건강지원사업

이메일
8000
480

1. 지원현황: 2007년 28명, 2008년 45명, 2009년 45명, 2010년 42명, 2011년 30명
으로 5년간 총190명을 지원

2. 2012년 예산 142,750,130원 (2년 1억원) * 배분비 500만원
(2011이월금 47,750,130원/가장 98,133,180원/활동가 44,616,950원)

3. 세부지원내용

지원내용	자 격	지원내용	사업 당 지원한도액
여성가장 및 그 자녀 (결혼이주여성 포함),	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 및 그 자녀(결혼이주여성 포함) ·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, 현재 경제활동(일상생활)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(일상생활)이 가능한 경우 ·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의 자녀로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	① 질병의 진단, 치료, 수술비 (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)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	사례당 3,000,000원 이내
여성활동가	·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·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, 경제적 문제(2011년 최저생계비 200%이하)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·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① 질병의 진단, 치료, 수술비 (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)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③ 건강검진비 (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자부담이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)	

■ 지원제외 대상

- 1년 이내(2011년) 유사 사업 지원자는 연속 신청할 수 없음.
-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.

■ 지원내역

- 해당 질병의 검사, 치료, 수술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
-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.
- 선정 이전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지원내역에 포함하지 않으며, 선정 이후 해당 질환의 치료에 연관된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함.

guide line
주요

인생제1캠프 (건강정신) 이야기 제2기 인생제1캠프 → Camp. 여27회 10-15일 계층. 지역

여성의인생사랑
여중생(활동가)
지역사회에 뿌리내림
여성인생사랑에 힘
합리원내(건강정신)에 대한 노력
건강에 대한 다양한 개념 (신체, 정신, 사회, 환경)
건강/NGO/다양한 분야
치유(병원, 요양원)
건강영양강화
A단계는 사랑강화

- 건강검진비는 여성활동가에 한하여 지원하며,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원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 중 자부담 발생분만 지원함.

① 공적서비스 VS 민간영향 . 여성환경연대
(여성건강 Network 필요)

4. 논의사항

1) 현재 여성건강과 관련한 과제 및 지원 트렌드

당론 { 공공. 정책 사례
지역연구

2) 한국여성재단의 건강지원 지원사업 발전 방향

-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이슈를 중심에 두고 '여성건강' 지원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

- 각 사업별 효율적 운영 방안(아웃소싱 등)

하이패 운영방안 - 건강Network + 연구. 조사.
+ 돌의 : '여성건강' 이 무엇인가.

② 아동 - 교육 & 이야기 (camp)
(재보)

③ 2007 - 2012 초라. ~~환경~~ 연구

④ outsourcing / 심사. 배분. 결과보고.
위원회의

2012 “엄마에게 희망을” 건강지원사업

정진주 전문위원 미팅 회의록

2012년 2월 9일 오후 2시~4시

정진주 위원, 박금희 팀장, 양영희 대리

1. 건강 담론 형성 방안

- ‘여성건강’, ‘건강증진’과 관련하여 사회적 담론이 부재함
- 현재의 치료비 지원도 의료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음

-> ‘여성건강Network’가 필요함. 건강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지역의 요구, 성공, 실패 사례도 모을 수 있는 장으로 학계, NGO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테이블 마련, ‘건강증진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. 추후 하이큐 기금 등을 통해 기획 사업으로 건강 담론을 주제로 한 연구사업(현장 단체 실천방안을 포함)을 할 수 있음

2. 현재 건강지원사업 운영 방식의 한계 및 효율화 방안

- 한국여성재단 실무인력 중 건강관련 전문 인력이 부재함
- ‘엄마에게 희망을’ 지원사업과 같이 매월 공모(접수)-심사-선정-결과보고하는 단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직접 사업의 경우 여성재단이 아닌 현장 지원단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함
- 현재 사업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정비하여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함

-> 기존 건강지원사업 정비 및 재단이 이루고자 하는 건강지원 사업의 목적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단위를 찾아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있음.

3. 건강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해법으로서의 아웃소싱 방안

- 지난 건강소위 의견으로는 한국여성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‘여성건강지원’ 사업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한 합의도출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운영 효율화를 모색하자고 함

-> 아웃소싱을 할 경우 지원 프로세스 수행 및 사업 종료 후 연간 사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.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 될 수 있음.

지원기준 및 운영방안을 합의한 이후에는 심사 심사소위에서 하던 역할을 대신할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 선정까지 자체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

실무 인력 1인 및 책임 인력을 상정했을 때 현재 운영비(배분경비)보다는 확대가 필요함. 단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무 인력 1인이 다른 사업도 병행하는 방안 마련.

사무실 없이 연락처만 두고 운영할 수도 있음.

4. 하이큐, 풀무원 사업 운영방안

- 하이큐 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, 예방 차원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음. 지난 건강 소위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지역 보건 차원에서 주치의와 같이 지역간호사를 거점에 두고, 상담을 통한 예방 활동을 주력할 수 있음
- 풀무원 사업의 경우 후원사의 피드백 결과 지난 해 진행한 사업보다 수적인 확대가 요구될 수 있고 교육 사업과 이벤트 성 사업(마라톤 대회, 순회공연 형식의 토크콘서트 등)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음(4-5월 진행예정)

-> 확정된 이후 하이큐 기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음. 연구 조사, 건강 교육, 예방 활동 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

풀무원 사업의 경우 갯년기 교육을 보다 질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캠프를 도입하는 방안,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'장'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10-15인 규모로 하되, 여러 회 진행하여 수적인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. 단, 계층에 대한 고려와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여성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자조집단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.

* 기타 아웃소싱사업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청에 제출한 구 단위 보건소에 건강교육 및 상담하는 전문가 운영하는 사업 추진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, 이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 수행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.